

창가에 핀 진달래꽃을 바라보며

지영현 시몬 신부
청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몇 일 전부터 제 방 창문 너머로 진달래 꽃들이 수줍게 한 잎 한 잎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올 해 첫 번째로 우리 집에 핀 진달래꽃을 바라보면서 참 반가웠습니다.

기나 긴 겨울의 터널 빠져나와 새로운 봄의 시작을 알리는 연분홍의 꽃 진달래가 저를 설레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일 모레입니다.

주님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동참하는 사순시기와 성주간을 지내며 그리스도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매일 매일을 성주간으로 살아가는 환우들을 기억합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이고 희망이며 참 행복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도 참여하기 위해 우리는 수난을 견뎌내고 죽음을 받아들이며 부활을 희망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과 환우들은—비록 서로 다른

신념과 믿음을 갖고 있다하더라도—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처지에서 같은 희망을 갖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희망입니다.

특별히 임종을 맞이할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절망과 포기를 넘어 희망이란 참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희망이란 끈은 하느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끈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신비의 끈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신학교 입학 앞둔 어느 날, 저를 보고 싶어 한다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분은 30대 중반에 2명의 초등학교 딸을 둔 엄마였습니다. 그 분의 집을 방문하던 날의 느낌은 ‘환함’이라는 신비한 이미지로 기억됩니다. 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하얀 이불을 덮고 있었으며 방안도 온통 하얀 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의 옷도 하얀 옷이었던 같습니다. 두 딸들은 옆에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분은 제 기억으로 난소암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갖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입학할 준비를 하고 있던 아무것도 없는 저를 그 분은 보고 싶어했습니다. 그 분은 저에게 ‘축하한다’, ‘좋은 사제가 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 제가 그 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

지 않습니다. 또한 그 분의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그 분을 만난 날의 기억이 신비한 느낌으로만 남아있습니다. 마치 천상의 느낌이랄까?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참 조용하고 환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분은 제가 첫 방향을 맞이하기도 전에 하느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전 아직 그 분과의 만남을 기억합니다. 그 느낌 그대로…….

오늘 제가 임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기를 희망하게 한 첫 번째 사건이 아닌가 합니다. 그 분은 저를 불러주셨고 제 손을 잡아주셨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축하한다……’ 전 단지 그 분의 부름에 갔고 손을 내어드렸고 그 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보면 영적 돌봄의 기본적인 자세를 그 분으로부터 저도 모르는 새 배웠는지 모릅니다. 25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 다시 생각해 보면 참으로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 사건이 제가 호스피스를 하게 된 계기는 아니지만 이미 그렇게 준비되어져 왔다는 것이 참으로 신비할 따름입니다.

그 분을 기억하며 자매님이 가슴속에 품으셨을 희망을 새롭게 생각합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어린 두 딸을 두고 떠나야 하는 어머니의 형언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을 넘어 그 분이 품으셨을 새로운 희망을 묵상합니다.

그 새로운 희망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계세마니에서의 희망이며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맡기신 그 믿음과 사랑입니다. 또한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하느님께 대한 희망입니다.

오늘 아침, 새로운 한 송이 진달래가 제 방 창 너머로 피어났습니다. 어제는 없었는데 오늘 그렇게 아름답게 피어있습니다. 차디 찬 겨울을 이겨내고 아름답게 피어난 이 꽃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입니다. 그 겨울 마치 다시는 피지 않을 것 같았던 앙상한 가지에 그 아름다운 꽃이 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매년 그 자리에 꽃이 핀다하여도 작년 그 꽃이 아니거늘 새롭게 핀 진달래 꽃 한 송이가 저에게 그리고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은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새 날, 새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